

토종 발효미생물 자원화 사업 탄력

농진청, 장류용 43종 · 약주용 10종 · 증류식 소주 종균 20종 생물자원 등록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인 '술'과 '장'에서 유용 토종 발효 미생물을 발굴해 자원화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술과 장류 종균에서 선발한 토종 발효미생물을 국가 생물자원으로 등록하면서 종균 제조 연구와 산업 현장에 적용해 미생물 종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농촌진흥청은 순창군 장류사업소,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와 함께 장류(된장, 청국장 등)와 우리 술(약주, 증류주)의 저장유통과 맛을 좌우하는 요소인 국내 토종 발효미생물 가운데 기능성과 관능적 특성이 뛰어나고 안전성이 확인된 균주 73종을 생물자원으로 등

록했다. 이번에 선발한 73종의 토종미생물은 장류용 종균 43종, 약주용 종균 10종, 증류식 소주 종균 20종이다.

장류용 종균(곰팡이, 고초균, 유산균)은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아플라톡신)를 생산하지 않는 누룩곰팡이 10종과 효소(전분, 단백질 분해)활성, 혈전용해와 항비만 등 기능적 특성이 뛰어난 고초균 21종과 유산균 12종을 생물자원으로 확보했다.

또한 현장 실용화할 수 있게 종균 제제화 매뉴얼 개발과 장기보존 기술을 확보했다.

특히, 장류용 고초균은 높은 혈전용해효소 생성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점질물(폴리글루칸, PGA) 생성이 중간 또는 강한 균을 보유하고

고 있어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점질물이 많거나 적은 장(청국장)을 만들 수 있다.

약주용 종균(효모)은 저온에서 알코올 발효가 우수하고 향미가 뛰어난 효모 10종을 선발해 효모의 높은 균체수를 5개월 이상 보존할 수 있는 액체종균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

증류식 소주 종균(효모, 유산균)은 알코올 생성능력이 높은 효모 10종과 향미 생성이 높은 유산균 10종을 선발해, 효모와 유산균을 조합해 진한 향과 깔끔한 맛이 뛰어난 증류주 제조에 성공했다.

유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 효소활성이 높은 장류용 종균으로 양질의 장(된장, 청국장) 생산과 저온 조건에서 발효능력이 우수한 종균

(효모) 사용으로 과일향이 풍부한 약주를 만들 수 있다.

발효종균 중 장류용 2종과 약주용 1종을 특허출원했고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발효식품은 세계적인 식품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 수입되는 미생물 종균은 연간 1억 달러이며, 이 중 발효 종균은 4,4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번 토종 발효미생물 자원 확보로 발효종균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백성열 농업연구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토종 미생물 자원 확보와 실용화 성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생필품 가격 고공행진 지속

나들이철 삼겹살·닭고기 가격 강세... 채소값은 하락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돼지고기 삼겹살과 닭고기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닭고기와 오징어 등은 전년 동월에 비해 가격이 두자리수로 상승한 반면 제철을 맞은 오이,호박,감자 등의 신선식품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4월 37개 판매점의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징어 2마리(국내산, 25cm 내외) 가격은 683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3% 급등했다.

오징어는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 품목 가운데 가장 높게 오른 품목이다.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위 10개 품목 중 8개가 신선식품이었으며, 가공식품 1개, 일반공산품 1개였다.

신선식품은 오이(-23.3%),호박(-20.5%),감자(-17.0%),시금치(-16.3%),대파(-13.1%),배추(-12.4%),당근(-10.9%) 등이 하락했고, 가공식품은 즉석우동(-8.3%)이, 일반공산품은 베이비선반(-9.3%)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이, 호박, 당근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꽃고추,오이,감자 등은 전통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했으며, 호박,배추 등은 대형마트가, 시금치는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위 10개 품목은 가공식품과 일반공산품

이 각각 4개, 신선식품이 2개였다. 가공식품은 빵(7.5%),분유(7.1%),초콜릿(5.8%) 등이 상승했고, 일반공산품은 바디워시(6.8%),썬크림(6.1%),키친타월(4.7%) 등이, 신선식품은 돼지고기(10.7%),닭고기(5.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삼겹살)는 2월부터 3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4월 들어 크게 상승했으며, 닭고기는 2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비쌌으며, 키친타월,초콜릿 등은 대형마트가, 닭고기,섬유유연제는 SSM이, 빵은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에는 오징어(50.3%),당근(49.1%),계란(33.4%),돼지고기(25.5%),별꽃(22.4%),갈치(22.1%) 등이 상승했고, 시금치(65.3%),오이(-45.0%),참조기(-44.4%),배추(-28.7%),일반린스(-22.7%) 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징어와 갈치의 경우, 어획량이 급감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생필품 가격정보를 주간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1+1 행사) 등을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개발공사, 전주 만성지구 남은 점포용 단독주택 공급

전북개발공사가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난해 공급하고 남은 점포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경쟁입찰방식으로 17일 공급한다.

또한 지난해 경쟁입찰로 공급, 유찰된 종교용지와 의료용지에 대해 재입찰 공급하며, 이번에도 유찰 또는 미계약시 선착순 수의계약도 진행한다.

이번 공급토지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신청받아 6월 8일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낙찰자가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6월 12~13일까지 진행된다. /인재용 기자



한전 전북본부, 안전문화 확산 간담회 개최

안전관리 우수 2개 협력사에 인증서·간식 상품권 전달

한전 전북본부는 해빙기를 맞아 노사가 특별 안전 Patrol Team을 공동 운영해 공사 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 활동을 벌여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해빙기 공사 현장 안전점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본부 기동 Patrol Team 5개조 및 각 지사별 사업소 자체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 기간 동안 점검반원들은 각종 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개인 안전장구 착용 및 충전부 방호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지반 취약 우려 개소에서 작업 시 전주 도교 등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현장 작업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올해 한전과 신규 단가 계약을

체결한 협력회사 방문 점검으로 과거 유사 사고 사례 교육 및 현장 작업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상호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점검활동 기간에 총 724개소의 공사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으며, 충전부 방호 미흡, 적정 인원 및 장비 활용 미흡 등 안전관리가 다소 취약한 22개소에 대한 시정사항을 협력회사에 전달했다.

또한 한전은 지난 15일 본부 주요 간부 및 안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2개 협력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에 대한 인증서와 간식 상품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인재용 기자

전북우정청, 대학생 우체국 개회

전북우정청은 16일 라이브Post홀에서 대학생 20여명을 초청해 '대학생, 우체국을 맡아라!' 라는 주제로 오늘날 우체국이 갖는 사회적 가치와 미래 발전 과제를 토론하는 우체국을 개최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전북대 이새롬 학생은 "가끔 택배를 보낼 뿐 우체국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다"며 "앞으로 우체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원대 채수진 학생은 "편리한 디지털 시대지만 아직도 정교 신뢰 등 아날로그 감성의 편지문화가 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본다"며 "앞으로 우체국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전북대 유석청 학생은 "우체국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농가, 중소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판매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수 청장은 "오늘날 우체국의 현실에 대한 대학생들의 대단히 실감있는 의견을 잘 들었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전북우체국이 추진하고 있는 살아있는 우체국 라이브 Post 운동에 적극 반영해서 우체국이 국민에게 보다 힘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전북식품 종합세일즈관 운영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도내 식품기업 20개사 판로개척 지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도내 농식품 기업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일부터 19일까지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전문전시회인 '2017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전북식품종합세일즈관을 구성해 참가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생진원은 '나만의 삼시세끼(혼밥,혼술)'를 주요 테마로 해 참가기업 제품을 '혼밥(아침거리, 요거거리, 야식거리), 혼술(혼술거리, 주전부리, 해장거리)' 존과 시장친투형 감성 통합브랜드 '미혼왕이' 존으로 공동관을 구성해 차별화된 전북민의 부스운영 전략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 생진원은 도내 식품기업 20개사의 판로개척을 지원해 우수상품 홍보 및 기업 마케팅을 강화

하고, 신규바이어 발굴 및 거점 바이어 연계 초청을 통한 B2B활성화와 종합 세일즈관 운영을 활용한 1:1 상담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생진원은 세프북상 및 참가제품으로 구성된 혼밥세트와 혼술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고, 아울러 도내 산학연 대상 최신 트렌드 및 시장 정보 제공을 위해 17일에는 벤치마킹 참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생진원은 도내 농식품기업들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발효식품, 지역특화 간편편의식, 1인식 및 유아식, 뷰티소재, 수출 주력제품 등을 홍보하고, 시장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발표 및 현지화 개선을 통해 지역기업에 마케팅 방향을 선도하고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인재용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